

## 에이즈 검사의 허와 실

신 영 오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1985년 에이즈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 국내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감염자가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특수업태부를 시작으로 정기 검사대상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보건소를 통한 정기적인 에이즈검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검사 대상자와 성적 대상자의 건강을 위한 취지에서라도 에이즈 검사는 강제검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부작용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검사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에이즈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미 감염자로 알려진 사람이 다시 보건증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정기 에이즈 검사는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갖는다. 근래 검사기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감염된 다음에 확진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하여도 아직도

에이즈바이러스에 걸린 다음 두 서너 달이 지나서 항체가 형성되고 나서야 검사가



능하다. 따라서 항체미형성기간동안 검사를 받는다면 에이즈에 감염되었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즉 검사 시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어도 이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에이즈검사를 통과하였으니 아무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기적인 에이즈검사를 통하여 양성으로 확인되는 감염자의 숫자가 투자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서는 평가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경제여건

으로 봐서 소수이나마 초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방지하는 에이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보건소를 통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상기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정기검사대상자, 이들의 성적 대상자, 기타 에이즈의 위험군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A